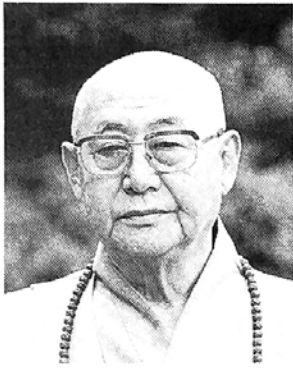


태고총림 초대 방장

덕암스님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방장에 추대된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은 오는 7월4일 추대식을 갖고 신내임자인 대각암에 주석할 예정이다.



“선원·강원역할 강화로 실천수행 승풍진작”

▲선암사는 천년고찰로 독특한 수행력으로 한국불교 전통법맥을 지켜온 사찰입니다. 명실상부한 총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대본산으로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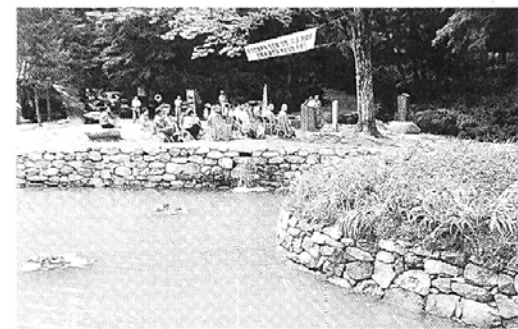
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선암사는 어디에 못지않은 사찰의 색깔을 가져왔습니다. 태고종의 대표적인 독신승 대종사들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김원우 기자

‘방송인 불자연협회’ 7월 출범

KBS BBS btn 등 5개 방송사... 합동법회 정보교환 등 계획

BBS btn KBS MBC SBS 등 5개 방송사 불자 방송인들이 ‘방송인 불자연협회’를 결성하고 신생활을 벌인다. KBS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가 주축이 된 최초의 ‘방송인 불자연협회’가 빠르면 오는 7월경 발족된다.



◇불교의 근본교의인 삼법인을 상징하는 1천여년 된 삼인당 연못이 복원됐다.

선암사 통일신라연못 삼인당 복원

통일신라시대의 연못인 순천 선암사 삼인당 복원공사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선암사주지 지허스님 방장총무원시장 유길수변호사 유창중총무원장 지정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이준엽 기자

라고 밝혔다. 현재 KBS의 경우 지방국 12곳에 불자 모임이 있고 타 방송사들도 이같은 모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는 김학선은 방송인 불자연협회의 구성을 통해 불자들의 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각지역별 방송인 불자네트워크 구성, 완전한 전국방송인 불자연협회로 발돋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복원한 것이다. 불교의 근본교의인 삼법인(三法印)을 상징하는 삼인당은 길이 30미터, 너비 3~9미터의 장타원형 연못으로 가운데에 알모양의 섬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호국영령 천도제

태고종, 금산·남해서

태고종 부산·대전총무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희생자 천도제를 경남 남해와 충남 금산에서 개최했다. 대전총무원(원장 윤희태)은 지난 24일 국군과 경찰 3백여명과 공비 2천7백여명이 희생된 충남 금산군 백암사에서 아군과 적군희생자 영가를 천도했다.

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방송인 불자연협회는 일반인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불교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역할과, 또 각 방송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교환도 모, 불교 각종단의 소식과 관련 자료들의 정기 수집등과 같은 사업도 펼쳐 나가기 된다.

이은자 기자

불교TV 제작중

만다라를 통해 펼쳐보이는 티벳 불교의 정수 칼라차크라법회를 머지않아 TV를 통해 안방에서 직접 만나게 된다. 불교TV 특별취재팀이 북인도 쿠쿠마나리지역의 사찰 타보(Tabo)의 창건 1천년을 기념하여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칼라차크라 법회를 직접 영상에 담아 ‘칼라차크라의 신비(가제, 김대우, 김충현PD)’를 제작한다.

‘가짜 문화제’

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대담은 간단하다. 정부의 문화제에 대한 안이한 자세 때문이다.



SBS드라마 ‘임꺽정’ 출연 봉원사 환 월스님

“단역이지만 불법 영상포교 최선”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장면을 연기한다. 이미 촬영을 마친 스님은 “한번의 NG도 없이 촬영이 끝나서 PD와 스태프들이 만족스러워 했다”면서 “스님이 직접 스님 역할을 하니 잘못 전해지거나 틀리는 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방송가 소식

불교TV ‘고려대장경’ CATV 우수프로 선정

불교TV가 부처님 오신날 특집프로로 방영했던 고려대장경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분기별 선정 발표하는 우수프로로 람에 선정됐다.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보존에 얽힌 신비를 본격적으로 해부한 최초의 작품인 고려대장경은 조성과 운반, 보관의 신비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등 학술적 가치는 물론 대장경 조성이 갖는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정밀히 조명해 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케이블설치 할인권 불교TV 4499건 접수

불교TV가 CATV 가입자 확대사업의 하나로 실시해온 설치비 50% 할인권배포가 지난 5월31일로 마감되면서 총 4천499건을 접수받아 신청기구에 설치됐다. 지난 4월15일부터 전국 지역방송국에 할인권 배포에 나선 불교TV는 약 1달반 동안 설치가입을 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채널 홍보를 벌여왔다.

1백만가구 가입 돌파 CATV협 축하공연

CATV 분방송 1년3개월 만에 1백만가구 돌파를 축하하는 대축제 공연이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3만여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한영우 기자

조계종 제12회 임시중앙종회가 18일 개원했다.

회기 첫 날, 종회장이 갑자기 평평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총무원이 추천한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화합차원에서 합의도출을 이끌어 내자”는 촉과 “종회신뢰를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호법부장 부결의 의미

부 거수기”라는 악명을 받았던 종회가 오랜만에 집행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종회의 파란’에 버금가는 또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호법부장으로 선임된 개인보다

는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총무원은 종회를 앞두고 14일 총무부장을 비롯해 부장급 인사들을 단행했다.

그러나 집권중반기에 들어선 집행부가 개혁을 열망하는 종도들의 뜻을 경계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면 향후 개혁중단의 행보에는 오히려 청색신호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처럼 소신있고 건강한 종회를 기대해 본다.

이준엽 기자

자난 18일 국보 274호 귀환별황자총통(龜別黃字銃筒)이 조각된 문화재는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19일에는 해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중요문화재 승자총통(勝字銃筒) 역시 시종에서 구입한 공물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목탁소리

유물의 진위 여부를 놓고 말성이 벗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진 사건이라 국보 등 지정문화재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

습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난에만 해도 고산구곡시화병(高山九曲詩畫屏·국보 237호)과 지난 2월 김홍도특별전에 출품된 금강사군침(金剛四郡帖)의 진위 논란이 이는 등 가짜 문화재로 물살을 얇은 것

는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울이며, 역사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행정 체계를 바로잡는 등 국가문화재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정부당국과 문화재위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화재를 사랑하는 자세부터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올바른 문화유산의 대물림은 우리 역사의 ‘무량지대계(無量之大計)’이기 때문이다.

한영우 기자

불교계·계·유·의·종·합·화·술·정·보·장·지
계간《多寶》는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합니다
불교계의 주요 흐름을 읽으려면 계간《多寶》를 보십시오
계간 多寶는 현상의 재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의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성아출판 TEL 778-6826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든 조각들
벗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원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기 다른 시련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